

프로야구 전망대

투수들의 무덤이 어디?

참담한 KIA, 이제 7위도 '위태'



KIA에게는 생각하지 못했던 가을이다. 시범경기 돌풍과 함께 화창한 봄날을 맞았지만 수확을 앞둔 가을은 초라하기만 하다.

지난 주말 신생팀 NC의 패기 넘치는 플레이에 덜미를 잡히면서 8위와의 격차는 1.5게임차까지 좁아졌다. 6위 SK는 6게임차까지 벌어졌다. 팀 성적은 물론 개인 성적도 암담하다.

김진우가 후반기 부진한 피칭을 이어가면서 9승 문턱에서 주저앉아있다. 초반 다승 1위를 달리던 양현종도 부상으로 9승에서 멈췄다. 현재 유일한 3할 타자 김선빈은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규정타석 진입이 어려운 상태고, 신중걸(0.325)은 남은 27경기에서 일단 97타석을 채워야 3할 타자를 노릴 수 있다.

빈손으로 맞게 된 가을, 타이거즈의 자존심에도 흠집이 났다.

50억 대어 김주찬의 영입과 송은범·신승현의 트레이드, 시즌 중반 외국인 투수 교체까지 진행하며 전력을 채웠지만 결과는 7위다. 신생팀 NC와 류현진의 유출 속 최하위 전력으로 평가받던 한화가 아래 버티고 있는 만큼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는 성적이다.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KIA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남은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쉽지는 않다. 벤치



이흥구

프로야구 중간순위 (9월 2일 현재)

Table with columns: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Rows include Samsung, LG, Doosan, Nexen, Lotte, SK, KIA, NC, Hanwha.

6위 SK와 6게임차 멀어지고

1.5게임차 NC에도 위협 당해

개인타이틀·황금장갑 후보 커녕

10승 투수·3할 타자도 없어

1위 삼성·3위 두산과 경기

7위 수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

는 8위 추락을 막으면서도 내년 시즌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련대에 몰렸다.

원정 4연전에 이은 한화와 홈 2연전. 원정길이 만만치 않다. 1위 삼성과 3위 두산이 기다리고 있다.

올 시즌 KIA의 가파른 추락에는 삼성이 있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이 2승12패. 삼성은 1위 굳히기를 위해 KIA 킬러인 밴덴할트(2승·2.61)와 윤성환(3승·1.88)을 대가시키고 있다.

두산도 어려운 상대다. KIA는 3승17무7패로 열세를 기록하며 두산의 4강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줬다.

반면 KIA의 라이벌이 된 NC는 느긋하게 한 주를 맞는다. NC는 휴식기로 이틀을 쉬고 후속작전을 보였던 넥센(5승6패)을 상대하는 만큼 내심 7위도 바라볼 수 있다.

깜짝 스타와 9회 마지막 아웃 카운트까지의 집중력이 절실하다. 엔트리 확장으로 문이 열린 만큼 기회를 얻은 선수들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줘야 한다.

부상 대란 속에 자리를 얻은 신인 포수 이흥구의 성장세가 그나마 위안. 1일 NC와의 경기에서는 6년차 포수 백용환과 3년차 외야수 유재혁이 프로 데뷔 첫 타석에서 첫 안타를 때려내면서 눈길을 끌었다.

KIA가 근성있는 플레이와 새 얼굴을 바탕으로 7위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콜롬비아 꺾고 첫승

세계청소년 야구선수권

한국이 제26회 세계 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에서 콜롬비아를 물리치고 1패 후 첫 승리를 거뒀다.

한국대표팀은 2일 대만 원정팀 더우류구장에서 벌어진 콜롬비아와의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선발 박세웅(경북·KT 1차 지명)의 무결점 투구와 기동력을 앞세워 4-0으로 이겼다.

전날 7이닝 동안 16개의 탈삼진을 뽑아낸 임지섭(제주·LG 1차 지명)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오심으로 1-2로 쿠바에 분패했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분위기를 추스르고 통산 6번째 우승을 향해 힘차게 첫발을 댔다.

한국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대회에서 콜롬비아에 1-3으로 패한 빛을 1년 만에 갚았다. 안방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려던 한국은 당시 예상치 못한 북경 콜롬비아에 조별리그에서 발목을 잡혀 결국 5위에 머물렀다.

우완 정통투수 박세웅은 시속 140km 안팎의 직구와 면도날 슬라이더 등 완벽한 제구로 6회까지 단 1개의 안타도 맞지 않고 삼진 10개를 속아내는 등 1피안타 무실점 패투를 기록했다.

한국은 9회 우완 사이드암 안규혁(덕수·삼성 지명)의 볼넷 2개와 폭투로 1사·1·3루 위기에 몰렸다. 구원 등판한 이수민(상원고·삼성 1차 지명)도 볼넷을 내줬지만 한주성(덕수고·두산 1차 지명)이 내야 뜬공과 내야 땅볼로 영봉승을 완성했다.

한국은 이날 두 차례 주루사를 기록했지만 경기 초반 도루 5개에 성공하며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한국은 3일 대만 타이중시 타이중구장에서 2라운드 진출에 사활이 걸린 미국(오전 11시 30분), 호주(오후 7시 30분)와 더불어 더를 치른다. /연합뉴스

광주 추계 중학 야구대회

오늘 무등경기장서 개막

2013 광주시 추계중학교 야구대회가 3일 무등경기장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에는 무등·총장·동성·진흥중이 참가하며 5일까지 리그전으로 해서 승부를 가리게 된다.

3일 오전 10시 진흥중과 총장중의 경기를 시작으로 무등중-동성중(오후 12시), 진흥중-동성중(4일 오전 10시), 총장중-무등중(4일 오후 12시), 총장중-동성중(5일 오전 10시), 무등중-진흥중(5일 오후 12시)의 대결이 펼쳐진다.

동틀이 나올 경우 최소실점, 최다득점 순으로 우승팀이 결정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5일 14승 도전 '투수들의 무덤' 추신수 18호 홈런 '평'

콜로라도 쿠어스필드

15승 투수 데라로사와 맞대결 고지대에서 경기 흥런 주의보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왼손투수 류현진이 '투수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쿠어스필드의 마운드에 올 시즌 처음으로 올라 시즌 14승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5일 오전 9시40분(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시즌 27번째 선발 등판이자 14번째 원정 등판이다.

류현진이 콜로라도 원정에 나서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3일 쿠어스필드 등판이 예정되었으나 당시 직전 경기에서 타구에 왼발등을 맞아 생긴 부상이 다녔지 않아 등판 일정을 미뤘다.

쿠어스필드는 타자들이 득점하는 데 유리한 구장으로 손꼽힌다. 해발 1601m의 고지대에 위치한 쿠어스필드는 공기 밀도가 낮아 장타가 자주 나오는 편이다.

류현진의 맞상대인 호르헤 데라로사는 콜로라도 팀내 최다승 투수이면서 쿠어스필드에서 가장 막강한 투수다. 왼손투수 데라로사는 올 시즌 28경기에 선발 출장해 평균자책점 3.33, 15승(6패)을 거뒀다. 데라로사는 쿠어스필드에서 전하무적이다. 그는 홈에서 열린 13경기에서 9승1패 평균자책점 2.74를 기록 중이다.

류현진은 홈 구장에서 평균자책점 2.07, 7승2패로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6승3패에 평균자



로사에 압승을 거뒀다.

류현진은 직전 경기인 3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경기에서 초반부터 전력투구를 펼쳤다.

1회에 점수를 많이 준다. 1회에 점수를 많이 준다. 1회에 점수를 많이 준다. 1회에 점수를 많이 준다.

한편 올 시즌 총 167이닝을 소화한 류현진이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3이닝 이상 던지고 시즌 170이닝을 돌파하면 연봉 외에 25만 달러(약 2억7000만원)의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류현진은 지난해 다저스와 6년 3600만 달러(약 397억원)에 계약하면서 매년 170이닝 이상 던졌을 때 보너스를 받기로 했다. 170이닝부터 200이닝까지 10이닝을 넘길 때마다 25만 달러씩의 추가 보너스를 받는다. /연합뉴스

책점 4.05로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그러나 류현진은 데라로사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5월1일 콜로라도를 상대로 한 홈경기에서 6이닝 동안 3피안타 2실점으로 호투하고 시즌 3승째를 챙겼다. 당시 4이닝 11피안타 6자책으로 패전투수가 된 데라

3안타 불방망이에 17호 도루

20-20클럽 가입 가능성 높아

'추추 트레인'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시즌 18호 홈런포를 포함해 3안타의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올 시즌 17번째 도루에도 성공. 20-20(홈런-도루) 클럽 가입 가능성을 높였다.

추신수는 2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 5타수 3안타 1홈런 2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추신수는 통산 100호 홈런을 터뜨린 지난달 28일 세인트루이스전을 시작으로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시즌 타율은 0.281에서 0.284로 올랐다.

콜로라도의 우완 선발 타일러 챗우드를 상대로 추신수는 1회초 첫 타석에서 중견안타를 뽑아냈다. 팀이 0-2로 뒤진 3회초에는 승부의 균형을 맞추는 2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무사 1루에서 타석에 선 추신수는 챗우드의 5구째 낮은 직구를 잡아당겨 오른쪽 펜스를 넘기는 홈런을 만들어냈다. 지난달 28일 세인트루이스전에서 메이저리그 통산 100호 홈런을 날린 이후 다섯째 만이다.

이날 도루와 홈런을 한개씩 추가한 추신수는 시즌 홈런 18개, 도루 17개를 쌓아 2010년 이후 3년 만의 20-20 달성도 가시권에 뒀다. /연합뉴스



올 시즌 18홈런과 17도루를 기록 중인 추신수(신시내티 레즈). 최근 메이저리그 통산 100호 홈런을 날리며 메이저리그 데뷔 9년 만에 100(홈런)-100(도루)클럽에 가입했다. /연합뉴스

한·일 프로야구 OB

11월 포항서 친선전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에서 은퇴한 전설급 선수들이 11월 30일 오후 2시 포항구장에서 친선경기를 한다.

한국프로야구 은퇴 선수들의 모임인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한은회)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프로야구 프렌즈 매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개최 계획을 밝혔다.

한은회는 이번 친선경기에 한국 프로야구 OB 대표팀으로 이종범(한화) 코치를 비롯해 정민대 코치, 이만수(SK) 감독, 류중일(삼성) 감독 등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OB 팀 감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 OB 올스타 팀은 '대마신'(大魔神)이라는 별명으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12년, 미국프로야구에서 4년을 활약한 마무리투수 사사키 가즈히로가 감독을 맡고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에이스 출신 구와타 마사미, 1492경기 연속 무고체 출장을 기록한 '철인' 가네모토 도모아키 등이 출전할 예정이다.

한은회는 '프렌즈 매치'를 2년마다 정례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